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6권 제2호, 2016년 7월
Global Health Nurs Vol. 6 No. 2, 80-88, July 2016 ISSN 2233-5560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

하주영 · 심보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Ha, Ju-Young · Sim, Bo-Yu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 Adolescence Welfare Panel Survey 2014. The subjects were 2,051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school type were found for offenders of both juvenile and cyber delinquency, while juvenile offenders also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also found between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s of juvenile and cyber delinquency. **Conclus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revention and management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in schools.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Bullying, Mental health, Adolescent heal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학교폭력을 넘어 교사 폭행, 성추행 및 성폭력, 살해 및 시신유기 등 비행이 범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Byeon & Choi, 2016). 청소년 통계(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살인과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의 비율이 2006년 3.6%에서 2014년 4.1%로 증가하였으며, 강력 범죄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은 저연령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비행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누범화, 난폭화, 도시 집중화 되는 특성이 있어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중재 개입이 시급한 실정이다(Woo & Chung, 2013).

최근 청소년 비행의 한 형태로 사이버 비행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비행은 아직 명칭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불링, 사이버공격, 오프라인 비행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공격이나 괴롭힘을 의미한다(Chung & Kim, 2012; Kim et al., 2013; Seo & Cho, 2013). 일반적으로 사이버 비행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여 욕설과 협박,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와 인터넷 동호회, 온라인 게임,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언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거짓 정보를 유포

주요어: 청소년 비행, 괴롭힘, 정신건강, 청소년 건강

Corresponding author: Sim, Bo-Yu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50612, Korea.
Tel: +82-51-510-8332, Fax: +82-51-510-8308, E-mail: yahoyaong@naver.com

투고일: 2016년 6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25일

ⓒ 2016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고립시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Hinduja & Patchin, 2007; Seo & Cho, 2013).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 정도와 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 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20% 이상이 사이버 비행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Ministry of Education, 2014)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이버 비행 피해경험은 2013년 4.9%에서 2014년 6.2%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사이버 비행의 영향으로 노여움, 슬픔, 당황, 높은 스트레스, 공포, 고독, 절망, 우울, 불안, 자신감 저하, 좌절감, 공격성,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교거부, 학업 스트레스, 학업성적 부진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07; Chung & Kim, 2012; Seo & Cho, 2013). Seo와 Cho (2013)의 9,29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대한 사이버 비행을 경험한 집단과 사이버 비행과 일반적인 비행의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에서는 50%가 넘는 학생들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 비행의 피해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청소년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가 사이버 비행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Chung & Kim, 2012; Kim et al., 2013; Seo & Cho, 2013)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미흡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조사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 청소년 건강통계로 이 통계자료는 국내 청소년의 행태 분석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Lee & Park, 2014). 이 시기는 인간의 전 생애 발달단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과도기적 단계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개인적·심리적·사회 환경적 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 행동이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Jin, Park, & Bae, 2011). 청소년 비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청소년기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기의 범죄나 사회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Kazdin, French, & Unis, 1983).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은 그 자체보다는 다양한 생태학적 요인 및 정신적 요소를 고려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높은 대표성을 가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표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과 새로운 비행행태로 대두되는 사이버 비행의 관련요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4년에 실시한 제5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2014)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사이버 비행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건강증진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제5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제5차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NYPI, 2014)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KCYPS (NYPI, 2014)는 초1, 초4, 중1, 3개의 중다 패널을 대상으로 2010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의 실태 및 변화를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제1차 조사당시 중1이었던 패널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수집된 제5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표본으로 뽑힌 78개 학교에서 1개 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추출하여 학급학생 전원을 조사한 것으로 총 2,351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한 2,0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청소년 비행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청소년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가해경험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놀림이나 조롱, 집단따돌림, 패싸움, 폭행, 협박, 갈취,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13문항에 대한 가해경험을 기준으로 경험을 했으면 1,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은 놀림이나 조롱, 집단 따돌림, 폭행, 협박, 갈취, 성폭행이나 성희롱, 욕설 등의 7문항에 대한 피해경험을 기준으로 경험을 했으면 1,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청소년 비행 점수로 설정하였다.

2) 사이버 비행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사이버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타인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 욕설이나 폭력적 언어사용 등의 6문항에 대하여 경험을 했으면 1,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를 사이버 비행 점수로 설정하였다.

3)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삶의 목표, 삶의 만족, 또래애착을 확인하였다.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Rogenberg (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써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등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Song (2009)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등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다.

(3) 삶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삶의 목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미국 교육종단연구(U. S. Department of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의 문항을 청소년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4)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 발달지표개발의 일환으로 작성된 삶의 만족 척도(Kim et al., 2006)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사는게 즐겁다' 등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5)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는 KCYPS (NYPI, 2014)의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IPPA)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

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등의 긍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0이었고 의사소통, 신뢰, 소외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78, .82, .7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제5차 KCYPS (NYPI, 2014)는 면접조사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학급 청소년 전원에게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에 가입절차를 거쳐 자료 사용에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에 앞서 연구자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절차를 거쳤다(2016_60_HR).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비행, 사이버 비행, 정신건강 요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비행, 사이버 비행, 정신건강 요소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추가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 비행, 사이버 비행, 정신건강에 따른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차이 x^2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1.0%, '여학생'이 49.0%였으며, 학교종류는 '남녀공학'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특성은 '일반 고등학교'가 65.7%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보통'이 6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의 차이는 성별(t=12.61, p<.001), 학교종류(F=24.36, p<.001), 학교특성(F=9.3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상태(F=0.21, p=.80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 분석 결과 남자학교가 여자학교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높았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일반고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가 자율형 사립고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의 차이는 성별(t=-0.31, p=.753), 학교종류(F=2.06, p=.103), 학교특

Table 1. Mean Scores of Juvenile and Cyber Delinquency for Gender, School Type, School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e (*N*=2,051)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1,047 (51.0)	0.69±1.14	12.61	0.03±0.22	-0.31	0.31±0.65	6.47
	Female	1,004 (49.0)	0.20±0.56	(<.001)	0.04±0.27	(.753)	0.15±0.42	(<.001)
School type	Boy[a]	463 (22.6)	0.57±0.96	24.36	0.03±0.22	2.06	0.31±0.69	5.65
	Girl[b]	509 (24.8)	0.16±0.51	(<.001)	0.02±0.21	(.103)	0.16±0.43	(.001)
	Co-education[c]	1,079 (52.6)	0.53±1.05	a>b	0.04±0.27		0.24±0.55	a>b
School characteristics (n=2,046)	GHS[a]	1,345 (65.7)	0.37±0.83	9.32	0.03±0.24	0.12	0.25±0.57	0.88
	PHS[b]	224 (10.9)	0.40±0.79	(<.001)	0.04±0.26	(.994)	0.22±0.63	(.507)
	SPHS[c]	84 (4.1)	0.66±1.21	c, d>a	0.04±0.19		0.16±0.41	
	SVHS[d]	393 (19.3)	0.69±1.20	d>b	0.04±0.26		0.20±0.51	
Economic state	Low	359 (17.5)	0.51±0.97	0.21	0.03±0.34	1.05	0.21±0.59	1.51
	Middle	1,286 (62.7)	0.55±0.86	(.807)	0.02±0.22	(.349)	0.24±0.57	(.220)
	High	406 (19.8)	0.57±1.11		0.06±0.21		0.29±0.51	

GHS=general high school; PHS=private high school; SPHS=special purpose high school; SVHS=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able 2. Average Scores for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N*=2,051)

Variables	M±SD	Minimum score	Maximum score	Possible score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0.45±0.94	0	8	0~13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0.03±0.24	0	4	0~7
Cyber delinquency	0.23±0.56	0	6	0~6
Self esteem	29.00±4.49	15	40	10~40
Ego-identity	21.46±3.12	11	32	8~32
Life goals	47.48±4.96	26	60	15~60
Life satisfaction	8.41±1.76	3	12	3~12
Peer attachment	28.09±3.86	12	36	9~36
Communication	9.38±1.39	3	12	3~12
Trust	9.62±1.58	3	12	3~12
Alienation	5.90±1.85	3	12	3~12

성(F=0.12, p=.994), 경제상태(F=1.05, p=.349)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 비행 경험의 차이는 성별(t=6.47, p<.001), 학교종류(F=5.6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남자학교보가 여자학교보다 사이버 비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F=0.88, p=.507), 경제상태(F=1.51, p=.22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은 Table 2와 같다.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은 총점 13점 중 평균 0.45±0.94점, 피해경험은 총점 7점 중 평균 0.03±0.24점, 사이버 비행 경험은 총점 6점 중 평균 0.23±0.56점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요소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총점 40점 중 평균 29.00±4.49점, 자아정체감은 총점 32점 중 평균 21.46±3.12점, 삶의 목표는 총점 60점 중 평균 47.48±4.96점, 삶의 만족도는 총점 12점 중 평균 8.41±1.76점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총점 36점 중 평균 28.09±3.86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총점 12점 중 의사소통은 9.38±1.39점, 신뢰는 9.62±1.58점, 소외는 5.90±1.85점이었다.

3.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의 관계

대상자의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은 비행 피해경험(r=.08, p<.001), 사이버 비행 경험(r=.13,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은 사이버 비행 경험(r=.06, p=.007), 소외(r=.10,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r=-.06, p=.001), 삶의 만족(r=-.05, p=.022), 의사소통(r=-.06, p=.006)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이버 비행 경험은 삶의 만족(r=-.07, p=.001), 의사소통(r=-.05, p=.038), 신뢰(r=-.05, p=.040)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 정신건강에 따른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본 연구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임상적 의의가 부족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은 성별(p<.001), 학교종류(p<.001), 학교특성(p<.001), 경제상태(p=.001), 비행 피해경험(p=.034), 사이버 비행 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은 학교종류(p=.026), 비행 가해경험(p=.034), 사이버 비행 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청소년 사이버 비행 경험은 성별(p<.001), 학교종류(p=.003), 비행 가해경험(p<.001), 비행 피해경험(p=.001), 삶의 목표(p=.006), 삶의 만족(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ject variables and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and Mental Health (*N*=2,051)

Variables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r (*p*)	r (*p*)	r (*p*)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08 (< .001)		
Cyber delinquency	.13 (< .001)	.06 (.007)	
Self esteem	-.01 (.648)	-.06 (.001)	-.01 (.802)
Ego-identity	.01 (.938)	.01 (.853)	-.02 (.360)
Life goals	-.03 (.158)	.03 (.231)	.01 (.557)
Life satisfaction	.01 (.715)	-.05 (.022)	-.07 (.001)
Communication	-.01 (.737)	-.06 (.006)	-.05 (.038)
Trust	.01 (.686)	.04 (.118)	-.05 (.040)
Alienation	.04 (.052)	.10 (< .001)	-.01 (.8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 사이버 비행 경험을 분석한 결과 비행 가해경험과 사이버 비행 경험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많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Nam, 2012; Zheng & Cleveland, 2013). 청소년 비행의 성차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비행에 있어서도 성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Chesney-Lind, 1997).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녀에 따른 사회화가 달랐으며, 사회의 통제나 통념,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남녀의 상징적인 성 관념을 내면화 시키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Nam, 2012). 학교종류에 따라서는 남자학교가 여자학교 보다 비행 가해경험과 사이버 비행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한 청소년 비행에 있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비행 가해경험이 높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을 다룬 연구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여자청소년의 비행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어(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9), 성별에 따라 비행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메타연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특성에 따라서는 비행 가해경험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일반고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가 자사고보다 비행 가해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반고,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특성의 학교가 존재하며, 고등학교로 진학시 학업성적에 따라 학교특성별로 차별적 진학이 이루어진다. Kim (1990)는 학벌이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의 특수성을 밝히기 위하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적이 부진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이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학업성적에 따른 심리적 긴장을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특성에 따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로는 전무한 실정으로 학교특성을 무시하고 청소년 비행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추후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학교특성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 비행 가해경험, 사이버 비행 경험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행 가해경험은 피해경험, 사이버 비행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 피해경험은 사이버 비행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대규모 표본 수에 의해 조사된 연구로서 청소년 비행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의 범위가 0.06~0.1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임상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청소년 비행 지표간의 관계를 카이제곱검정으로 추가분석을 하였다. 확인한 결과 비행 가해 경험은 비행 피해경험과 사이버 비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비행 피해경험은 비행 가해경험과 사이버 비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이버 비행 경험은 비행 가해경험과 비행 피해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Lauritsen, sampson & Laub, 1991, Park, 2006; Hinduja & Patchin, 2007). 이러한 결과는

Table 4. Juvenil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ubject Variables (*N*=2,051)

Variables	Categories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Cyber Delinquency		
		No	Yes	x^2 (*p*)	No	Yes	x^2 (*p*)	No	Yes	x^2 (*p*)
		n (%)	n (%)		n (%)	n (%)		n (%)	n (%)	
Gender	Male	647 (61.8)	400 (38.2)	156.98	1,020 (97.4)	27 (2.6)	0.08	805 (76.9)	242 (23.1)	36.45
	Female	865 (86.2)	139 (13.8)	(< .001)	980 (97.6)	24 (2.4)	(.784)	875 (87.2)	129 (12.8)	(< .001)
School type	Boy	304 (65.7)	159 (34.3)	78.92	452 (97.4)	11 (2.6)	7.33	358 (77.3)	105 (22.7)	11.93
	Girl	450 (88.4)	59 (11.6)	(< .001)	504 (99.0)	5 (1.0)	(.026)	437 (85.9)	72 (14.1)	(.003)
	Co-education	758 (70.3)	321 (29.7)		1,044 (96.8)	35 (3.2)		885 (82.0)	194 (18.0)	
School characteristics (n=2,046)	GHS	1,033 (76.8)	312 (23.2)	22.11	1,315 (97.8)	30 (2.2)	1.30	1090 (81.0)	255 (19.0)	1.90
	PHS	163 (72.8)	61 (27.2)	(< .001)	217 (96.9)	7 (3.1)	(.728)	186 (83.0)	38 (17.0)	(.594)
	SPHS	56 (66.7)	28 (33.3)		81 (96.4)	3 (3.6)		71 (84.5)	13 (15.5)	
	SVHS	258 (65.6)	135 (34.4)		382 (97.2)	11 (2.8)		328 (83.5)	65 (16.5)	
Economic state	Low	238 (66.3)	121 (33.7)	14.67	346 (96.4)	13 (3.6)	2.48	279 (77.7)	89 (22.3)	5.76
	Middle	980 (76.2)	306 (23.8)	(.001)	1,256 (97.7)	30 (2.3)	(.290)	1070 (83.2)	216 (16.8)	(.056)
	High	294 (72.4)	112 (27.6)		398 (98.0)	8 (2.0)		331 (81.5)	75 (1.85)	
Offenders of juvenile delinquency	No				1,481 (97.9)	31 (2.1)	4.52	1286 (85.1)	226 (14.9)	38.33
	Yes				519 (96.3)	20 (3.7)	(.034)	394 (73.1)	145 (26.9)	(< .001)
Victims of juvenile delinquency	No	1,481 (74.0)	519 (26.0)	4.52				1647 (82.3)	353 (17.7)	10.45
	Yes	31 (60.8)	20 (39.2)	(.034)				33 (64.7)	18 (35.3)	(.001)
Cyber delinquency	No	1,286 (76.5)	394 (23.5)	38.33	1,647 (98.0)	33 (2.0)	10.45			
	Yes	226 (60.9)	145 (39.1)	(< .001)	353 (95.1)	18 (4.9)	(.001)			
Self esteem	Low	682 (73.6)	245 (26.4)	0.02	898 (96.9)	29 (3.1)	2.87	770 (83.1)	157 (16.9)	1.52
	High	830 (73.8)	294 (26.2)	(.889)	1,102 (98.0)	22 (2.0)	(.090)	910 (81.0)	214 (19.0)	(.218)
Ego-identity	Low	794 (74.1)	278 (25.9)	0.14	1,039 (96.9)	33 (3.1)	3.24	888 (82.8)	184 (17.2)	1.30
	High	718 (73.3)	261 (26.7)	(.709)	961 (98.2)	18 (1.8)	(.071)	792 (80.9)	187 (19.1)	(.255)
Life goals	Low	790 (73.8)	281 (26.2)	0.01	1,048 (97.9)	23 (2.1)	1.06	901 (84.1)	170 (15.9)	7.43
	High	722 (73.7)	258 (26.3)	(.963)	952 (97.1)	28 (2.9)	(.303)	779 (79.5)	201 (20.5)	(.006)
Life satisfaction	Low	829 (74.0)	292 (26.0)	0.07	1,091 (97.3)	30 (2.7)	0.31	900 (80.3)	221 (19.7)	4.41
	High	683 (73.4)	247 (26.6)	(.794)	909 (97.7)	21 (2.3)	(.545)	780 (83.9)	150 (16.1)	(.036)
Communication	Low	1,056 (73.0)	390 (27.0)	1.21	1,409 (97.4)	37 (2.6)	0.11	1184 (81.9)	262 (18.1)	0.01
	High	456 (75.4)	149 (24.6)	(.272)	591 (97.7)	14 (2.3)	(.745)	496 (82.0)	109 (18.0)	(.956)
Trust	Low	932 (74.6)	317 (25.4)	1.33	1,218 (97.5)	31 (2.5)	0.01	1025 (82.1)	224 (17.9)	0.05
	High	580 (72.3)	222 (27.7)	(.248)	782 (97.5)	20 (2.5)	(.987)	655 (81.7)	147 (18.3)	(.821)
Alienation	Low	586 (74.1)	205 (25.9)	0.09	778 (98.4)	13 (1.6)	3.78	653 (82.6)	138 (17.4)	0.36
	High	926 (73.5)	334 (26.5)	(.767)	1,222 (97.0)	38 (3.0)	(.052)	1027 (81.5)	233 (18.5)	(.549)

GHS=general high school, PHS=private high school, SPHS=special purpose high school, SVHS=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비행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피해경험 역시 가해경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비행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청소년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기존의 사고에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이는 앞으로 비행의 가해경험 청소년과 피해경험 청소년을 구분하기 보다는 이들의 특성과 형태, 유사성 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들 모두가 비행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합한 중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Lee, 2009; Ka, Kim, & Lim, 2013) 청소년 비행 가해경험이 사이버 비행 경험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는데, 비행 가해자는 사이버 공간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보장 등의 특성으로 인해 폭력의 연장선으로 온라인상

에서도 쉽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망 기술의 발달로 윤리의식 발달이 미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문제행동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비행 가해경험 청소년을 교육함에 있어 사이버 비행 경험과 관련된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행 피해경험은 사이버 비행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행의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당하는 수동적 입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보복 심리 등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induja & Patchin, 2007). 비행 피해경험 청소년의 관리와 회복에 있어, 적개심,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Vaughn et al., 2010)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 비행 가해경험, 사이버 비행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행 피해경험은 자존감, 삶의 만족,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소외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 비행 경험은 삶의 만족, 또래 애착 중 의사소통, 신뢰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비행 피해경험, 사이버 비행 경험 청소년이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효능감, 자기비난, 낮은 삶의 만족,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Kim et al., 2013; Garnefski & Kraaij, 2014). 이러한 부정적 정신건강은 약물남용 및 문제 행동의 증가, 자해 행동, 자살 생각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Hinduja & Patchin, 2007) 사전에 피해경험 청소년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비행 경험과 정신건강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관계수의 범위가 0.05~0.10으로 매우 낮아 임상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카이제곱검정으로 추가분석을 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정신건강은 삶의 목표, 삶의 만족에 의해서만 사이버비행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개념으로 정확한 비교 및 논의는 어려우나 청소년의 삶의 목표와 만족의 정도가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을 겪는 시기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내적·외적 경험을 통해서 성숙의 기초가 되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며,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삶의 만족을 추구한다(Ko & Yoo, 2003; Lee & Park, 2014). 하지만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미래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불분명하고, 삶의 만족감 또한 낮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Ko & Yoo, 2003; Garnefski & Kraaij, 2014). 이에 청소년 비행 및 사이버 비행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삶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 실현을 통한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5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비행과 사이버 비행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비행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및 사이버 비행 경험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 피해경험과 사이버 비행 경험은 낮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또래와의 소통 장애, 소외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한 정서완화 중재와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래집단과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집단 프로그램, 전문적인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으로 진행되어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그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임상적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반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피해경험 및 가해경험 청소년만을 특정하여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Byeon, J. Y., & Choi, Y. K. (2016). Emotional clarity and response intensity of juvenile delinquent - in comparison with norm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361-385.

Chesney-Lind, M. (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Thousand Oaks, CA: SAGE.

Chung, Y. J., & Kim, D. I. (2012). Experienc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emotion 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645-663.

Garnefski, N., & Kraaij, V. (2014). Bully victimization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ts: Moderation by specific cognitive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37*(7), 1153-1160. https://dx.doi.org/10.1016/j.adolescence.2014.07.005

Hinduja, S., & Patchin, J. (2007).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https://dx.doi.org/10.1300/J202v06n03_06

Jin, H. M., Park, B. S., & Bae, S. W. (2011).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121-148.

Ka, S. J., Kim, G. M., & Lim, J. H. (2013). The effect of common use of SNS on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the adolescent.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1*(1), 159-208. https://dx.doi.org/10.16958/drsr.2013.11.1.159

Kazdin, A. E., French, N. H., & Unis, A. S. (1983). Child, mother, and father evaluations of depression in psychiatric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2), 167-179. https://dx.doi.org/10.1007/BF00912083

Kim, B. S., Lee, W. S., & Lim, S. S. (2013). *Understanding and responses to cyber bullying* (Information Culture Issue Report No. 13-01).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im, J. H. (1990). A study of Korean juvenile delinquency: The study pressure approach. *Korea Criminology Review, 1*(1), 113-147.

Kim, S. Y., Lim, J. Y., Kim, S. W., Park. S. H., Yu, S. Y., Choi. J. Y., et al. (2006). *Korea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I: The resulting partial verification measures*.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Ko, M. J., & Yoo, S. J. (2003). The effects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on the purpose in life and depression in the delinquent juveni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1), 5-14.

Lauritsen, J. L., Sampson, R. J., & Laub, J. H.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29*(2), 265-292. https://dx.doi.org/10.1111/j.1745-9125.1991.tb01067.x

Lee, E. H., & Park, H. O. (2014). Effects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The rol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399-426.

Lee, S. S. (2009). The effects of strain, low self-control, and internet time use on cyber delinquency: testing three theories of delinquency.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1), 95-114.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2009). *Crime White Paper*. Retrived from http://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view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4 2nd school violence survey results released*.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boardSeq=57762&currentPage=0&encodeYn=N&mode=view

Nam, J. B. (2012). Gender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al Science Research, 29*(2), 1-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2013 Survey of Information and Culture*. Retrieved from http://www.nia.or.kr/bbs/board_view.asp?boardid=201408061322068302&Order=020402&id=10856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Retrieved from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

Park, S. J. (2006). Changing patterns of victim-offending link in youth viol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17*(1), 47-8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o, H. W., & Cho, Y. O. (2013). The impact of cyber bullying victimization on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4), 111-131.

Song, H. O. (2009).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s ego-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6 Youth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Vaughn, M. G., Fu, Q., Bender, K., DeLisi, M., Beaver, K. M., Perron, B. E., et al. (2010). Psychiatric correlates of bullying in the United Stas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Psychiatric Quarterly, 81*(3), 183-195. https://dx.doi.org/10.1007/s11126-010-9128-0

Woo, C. Y., & Chung, H. H.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ts'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147-168.

Zheng, Y., & Cleveland, H. H. (2013). Identifying gender-specific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nonviolent and violent delinquency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6*(2), 371-381. http://doi.org/10.1016/j.adolescence.2012.12.007